

연습벌레 안세영 “땀인지 눈물인지 모르게 훈련”

광주 출신 배드민턴 기대주…“밥은 살려고 먹는 것” 연습 또 연습 “난 젊은게 강점, 체력훈련 많이 해 자신…도쿄올림픽 메달 딸 것”

배드민턴 국가대표팀의 막내이자 도쿄올림픽 최고 기대주인 안세영(19·사진)은 요즘 밥을 “살려고 먹는다”고 한다.

첫 올림픽 출전을 앞두고 엄청난 훈련을 소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충희 대표팀 감독은 너무 열심히 하는 안세영이 안쓰럽기까지 하다. 김 감독은 “휴식도 중요하다고 말해주고 있다. 하지만 선수 본인은 운동을 안 하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니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안세영은 배드민턴 여자단식 8위다. 안세영은 세계 톱10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리다.

경험은 적지만 최근 무서운 기세로 성장했다. 지난 1월에는 처음 출전한 ‘왕중왕전’ 월드 투어 파이널에서 정상에 올랐다.

안세영이 도쿄올림픽에서 메달을 목에 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안세영은 전화 인터뷰에서 “첫 올림픽이어서 긴장도 되고 떨리는데, 재밌을 것 같기도 하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안세영의 일과는 ‘연습 또 연습’이다. 그는 “코트에서 4~5시간 훈련하고, 밖에 나가서 뛰고 웨이트 훈련도 한다. 오전에 1시간 반에서 2시간, 오후에 2~3시간 훈련하고 야간에 2시간”고 설명했다.

“살이 빠졌겠다”는 말에 “빠지기도 빠지는데, 먹어야 한다. 살려고 먹는 것”이라고 했다.

안세영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의 아쉬운 기억 때문에 라켓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있다. 그는 아시안게임 데뷔전인 첫 경기에서 천위페이(중국)에게 0-2로 패해 그대로 탈락했다.

안세영은 “아시안게임에서는 모든 게 부족했다. 올림픽에서는 다르게 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루도 안 쉬고 준비하고 싶다”고 비장한 각오를 밝혔다.

그러면서 “나는 젊은 게 강점이다. 체력은 훈련을 많이 했으니 자신 있다”고 강조했다.

안세영은 광주체육중 3학년이던 2017년 성인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3년간 대표팀의 막내로 태극마크를 유지하며 한국 배드민턴의 미래로 많은 주목을 받았다.

올해 광주체육고를 졸업해 성인이 됐지만, 그동안 안세영은 학생 신분으로 성인 국제대회에 나가서 많은 좌절도 겪었다.

차세대 에이스로서 큰 기대를 받는 상황에서 마음이 조금씩 흔들려 한 경기 질 때마다 서러워서 눈물을 쏟기도 했다.

안세영은 “요즘도 우는 날이 많다. 땀인지 눈물인지 모르겠”이라며 “제가 울먹이니까 선생님(코치)께서 당황하시기도 한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그럴 때면 진전선수촌 운동장 벤치에 앉아 별을 본다. 별을 좋아하는데 선수촌에는 밤에 별이 많이 떠서 좋다. 별을 보면 마음이 다시 차분해진다”고 말했다.

2018년 아이리시 오픈을 시작으로 2019년 뉴질랜드 오픈, 캐나다 오픈, 프랑스 오픈, 올해 월드투어 파이널까지 국제대회에서 총 7개의 금메달을 목에 건 안세영은 도쿄올림픽에서도 “메달을 땀이면 정말 좋겠다”며 욕심을 숨기지 않았다.

그러나 “욕심을 낼 때마다 잘 안 될 때가 많다”며 “한 경기 한 경기 최선을 다해서 올라가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한국남자농구 떨어진 도쿄행

예선 1차전 베네수엘라에 패배

한국 남자농구 대표팀이 도쿄올림픽 최종예선 첫 경기에서 베네수엘라에 졌다.

조상현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1일(한국시간) 리투아니아 카우나스에서 열린 올림픽 남자농구 최종예선 조별리그 A조 1차전에서 베네수엘라에 80-94로 패했다.

이번 최종예선에서 한국 남자농구는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이후 25년 만의 올림픽 본선 진출 도전에 나섰다.

국제농구연맹(FIBA) 세계랭킹 30위인 한국은 조별리그에서 리투아니아(8위), 베네수엘라(20위)와 A조에 묶였다.

두 팀과 한 차례씩 맞붙어 1승을 거둬야 4강에 진출해 반대편 조에서 올라오는 폴란드(13위), 슬로바키아(16위), 앙골라(33위) 중 한 나라와 준결승을 치르고, 이후 결승전까지 승리해야 본선 출전권이 주어진다.

리투아니아보다는 격차가 덜한 베네수엘라가 한국으로선 1승을 노려볼 만한 상대였으나 패배를 떠안으며 준결승 진출이 쉽지 않게 됐다.

이날 한국에선 미국대학스포츠협회(NCAA) 디비전 1의 데이비드슨대에서 뛰는 슈터 이현중이 양 팀 최다 득점인 18점을 올리며 분전했다. 3점 슈트 3개를 쏘는 이현중은 5개의 리바운드와 2개의 스틸도 곁들였다.

팀의 기동 라니아(KCC)는 한국 선수 중 가장 많은 35분 41초를 소화하며 17점 10리바운드로 더블더블을 작성했다. 이대성(오리온)도 17점 8 어시스트로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2일 리투아니아와 조별리그 최종 2차전을 치른다. /연합뉴스

권순우 아쉽다

웬블던 2회전 키피에 2-3 패

권순우(71위·당진시청)가 웬블던 테니스대회(총상금 3501만6000 파운드·약 549억7000만원)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아쉽게 졌다.

권순우는 30일(이하 현지시간) 영국 런던 웬블던의 올잉글랜드클럽에서 열린 대회 사흘째 남자 단식 2회전에서 도미니크 키피(62위·독일)와 3시간 55분 접전 끝에 2-3(3-6 7-6(10-8) 6-7(2-7) 7-5 3-6)으로 졌다.

권순우는 1회전에서 다니엘 마주어(222위·독일)에게 승리해 생애 첫 웬블던 승리를 거둔 여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그러나 1회전에서 따낸 랭킹 포인트 45점으로 2020년 3월에 기록한 자신의 최고 랭킹 69위 경신을 기대하게 됐다.

이번 대회에서 상금도 7만5000 파운드(1억 1000만원)를 확보했다.

권순우는 이날 키피보다 워너(69-53)를 더 많이 때렸고, 전체 획득 포인트에서는 180-191로 크게 뒤지지 않았다.

그러나 우천 때문에 전날까지 1박 2일에 걸쳐 1회전을 소화해 체력적 부담이 컸던 탓인지, 실책을 키피(47개)의 두 배 가까이 쏟아냈다.

권순우는 앞서 열린 메이저 대회인 프랑스오픈에서 단식 3회전까지 오르고 이번 웬블던에서는 생애 첫 승리를 수확한데다, 이날 중순에는 처음으로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대회 4강에 올랐다.

프로 입문 이래 최상의 상반기를 보낸 권순우는 이제 한국 선수로는 13년 만에 오르는 올림픽 무대를 준비한다.

귀국 후 자가격리 면제를 받고 소속팀 당진시청에 합류, 2020 도쿄 올림픽을 겨냥한 훈련에 들어간다. /연합뉴스



1일 광주국제양궁장에서 열린 제32회 전국 남·여 초등학교 양궁대회 겸 제50회 전국소년체전 양궁 대회에서 남자 초등부 선수들이 과녁을 정조준하고 있다. <광주시양궁협회 제공>

최고 공사 누구...대통령기 양궁대회 광주서 내일 개막

9일까지 129개 팀 500여명 참가

대한양궁협회가 주최하고 광주시양궁협회가 주관하는 '제39회 대통령기 전국 남녀 양궁대회'가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광주국제양궁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남녀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129개 팀, 500여명이 참가해 올림픽 라운드 방식으로

리커브와 컴파운드로 나눠 진행된다.

2017년부터 광주에서 5년 연속 개최되는 대통령기 양궁대회는 세계 최강 한국양궁의 주역인 전국 각 시·도의 고등·대학·일반부 선수들이 출전하는 전통 있는 대회로 전국 최고의 권위와 명성을 자랑한다.

국제규모의 경기시설, 숙박, 교통, 음식 등에서 참가선수들의 호평 속에 해마다 역대 최고의 성공

대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대회 개최를 통해 국제 스포츠 도시 광주의 브랜드 제고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치러지는 만큼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치러진다.

공식 연습과 개·폐회식은 하지 않고 경기는 무

관중으로 진행된다.

이번 대회에 광주에서는 남구청(남자일반부), 광주시청(여자일반부), 조선대(남자대학부), 광주여대(여자대학부), 광주체육고(남·녀 고등부)가 출전해 '금빛 과녁'을 정조준한다.

한편, 대통령기대회에 앞서 1~2일에는 제32회 전국 남·여 초등학교 양궁대회 겸 제50회 전국소년체전 양궁 대회 사전경기가 광주국제양궁장에서 열린다. 전국 128개 팀 414명의 양궁 꿈나무들이 참가해 1440라운드(35m, 30m, 25m, 20m) 방식으로 개인·단체·거리별 순위를 가린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발신제한
2관	발신제한
3관	블라이스 스피릿, 웬디, 인 더 하이츠 컨저링3: 악마가 시켰다
4관	미드나이트
5관	과이어트 플레이스 2, 레일로드 워
6관	크루엘라
9관	다크 앤드 워키드, 인 더 하이츠 킬러의 보디가드 2
7관 씨네커풀	발신제한
8관 씨네커풀	미드나이트, 빛나는 순간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박수를 보내다: 독주회 I
김민지 첼로 리사이틀
일시: 2021. 07. 13.(화) 19:30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062-613-8235

GAC 11시 음악산책 4 차진엽의 지구 모자이크화
일시: 2021. 07. 28.(수) 11:00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062-613-8232